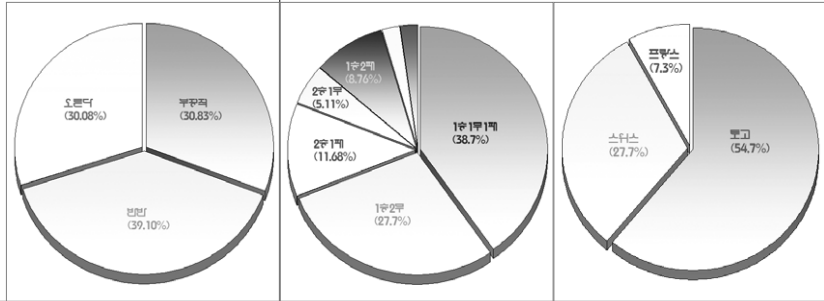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2002년의 영광을 다시 한번



■ 한국의 조별예선 G조 예상 성적

설문조사에서 159명(38.7%)이 1승1무1패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답변을 했고, 예선통과 안정권인 1승 2무를 거둘 것이라는 답변은 114명(27.7%), 2승 1패를 전망한 지도자들도 48명이나 됐다.

2승1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 지도자들은 21명

이번 호부터 새롭게 엮어갈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코너이다. 통계라는 숫자적 의미를 통해 우리네 생활 속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고자 한다.

2006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해 최대의 관심거리는 아마 월드컵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또 다시 TV앞으로, 광화문 거리로 나가 뜨거운 함성에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칠 것이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6월 9일 뮌헨에서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화려한 여정이 시작된다.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토고와 함께 G조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6월 13일 오후 22:00(한국시간)에 토고와 첫 시합을 갖는다. 국내 축구지도자들은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의 우리나라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한국 축구연구소에서 국내 축구 지도자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였고, 예선탈락이 예상되는 1승2패가 36명, 3무와 2무1패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 지도자도 각각 9명이 되었다.

■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와 그 밖의 설문

"한국이 조별예선을 통과해 16강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123명이 "부정적이다.", 156명은 "반반이다.", 120명은 "오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 16강 진출의 관건으로 조별예선 첫 경기 토고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에 195명(47.4%)이 "그렇다"고 답했고, 스위스를 선택한 사람은 177명(43.1%)이다.

한국이 속한 G조에서 가장 손쉬운 상대로는 225명(54.7%)이 토고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114명, 27.7%), 프랑스(30명, 7.3%)를 선택했다.

이밖에 2006독일월드컵을 앞둔 우리나라의 적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300명(72.9%)이 16강이라고 대답했다.

어쨌거나 뚜껑은 열어봐야 하나, 국민의 염원은 4강신화를 재현하는 것일 것이다. 